

# 정부, 대외무역법 개정 착수... 반도체장비 中수출통제 초읽기

산업장관, 美상무장관과 현안 논의 도입 본격화 대비 법적 근거 마련 업계선 “콩고물 모두 챙기겠다”

미-중 갈등 속 한국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본격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됐다. 미국은 2022년 말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 기술 성장 견제를 위해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하며 우방국에도 이를 압박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을 만났다. 이날 안 장관은 러몬드 장관과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의 개최를 통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체제에서의 양자 협력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안 장관은 정부의 대중 수출통제에 관한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바세나르협정과 같은 다자 수출통제 체제, 그리고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장관 간 만남 이후 대중 수출통제 조치 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 장관은 미국 입국 당시 대중 수출통제 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동맹들과 같이 공조를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난 2022년 말부터 반도체 제조 기술과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방국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클 매킨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상무장관에게 “한국·일본 기업들이 마이크로 이 잃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록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수출 통제에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기술 수준이 선진국인 한국이 중국 수요에 대응을 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시도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미국의 요구에 관한 시각은 “외교적으로 무례하다”를 전제로 하지만 해석 방향은 다양하다. 정부는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를 위한 요청을 현실적으로 모두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수출통제 조치 도입이 본격화 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으로, 현행법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근거 조항이 희박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중 수출통제가 곧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책인 반도체법(CHIPS Acts)으로 이어지면서 지원책도 쏟아지는 만큼 떨어지는 콩고물은 모두 챙기겠다는 분위기가.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반도체 법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책으로, 자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공장 리쇼어링(Reshoring, 자국 생산시설 국내 귀환)과 함께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과격적이다. 앞서 삼성 전자 또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텍사스 주(州) 반도체 생산기지 추가 건설 및 확장을 위한 용도로 60억 달러(8조 2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대중 수출규제가 강해질수록 한국 기업에는 다소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세계 시장 점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아 타격을 클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중국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수출통제에 관해 자국 기업 6곳이 새롭게 포함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허야동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중국 기업에 일방적인 제재와 ‘장기적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전혀적인 경제적 강압과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단통법·방송규제 등 여야 합의 ‘이목집중’

야당 압승에, 현정부 주요현안 항방은 단통법 폐지·플랫폼법 논의 지속 전망 인공지능 육성·방송 규제안은 ‘글세’

4·10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적극 진행 중이던 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 부문 제정 항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가진 단통법 폐지와 플랫폼법 제정안은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인공지능 육성 관련 법안 등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에서 더불어민주당 연합 14석을 합쳐 175석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108석을 확보했다.

이처럼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주요 현안으로 삼은 인공지능(AI), 단통법, 방송 규제, 플랫폼법 등 관련 여야 합의가 주목된다.

먼저 ‘인공지능육성및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했던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면서 관련 법률안의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최근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 분야에선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발표되지 한 달만에 22대 국회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달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해당법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IPTV·케이블·위성·휴소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등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해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먼저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제도는 단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수정해 만들어진 만큼 야권에서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변수로 지목된다.

플랫폼 업계선 연초 논의가 중단된 플랫폼법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관련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이후 정책방향·입법환경’ 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은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관련 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암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입법 진행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 고객에 강점을 가진 로펌 간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LGU+, ‘양자통신’ 생태계 조성 본격화

서울대 연구팀과 백서 발간

LG유플러스가 서울대 연구팀과 손잡고 양자통신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

LG유플러스는 14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경한 교수 연구팀(NXC연구실 이민재, 곽동수, 박찬정 석박통합과정 연구원)과 함께 ‘미래 양자통신 백서(백서)’를 발간했다.

최근 양자기술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35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통해 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양자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NXC연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계와 정부, 기업에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양자정보기술을 크게 양자통신·양자컴퓨팅·양자센싱으로 분류하고, 양자통신의 기술동향과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또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수소 에너지 공정 등을 개발하는 화학공학분야는 물론 유동 최적경로를 찾는 물류분야와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금융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LG유플러스 이상현 네트워크전략개발담당은 “다가올 양자통신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연구개발과 비즈니스로 더욱 진보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LG유플러스는 AI 및 양자통신을 비롯한 차세대 네트워크 트렌드를 리드하며 기업, 기관, 소비자 등 여러 고객에게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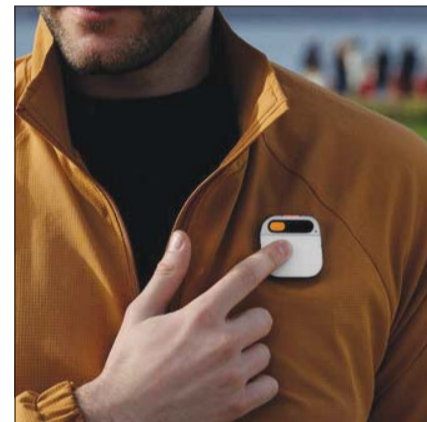
## 휴메인, 웨어러블 ‘Ai 핀’ 美 판매 개시

자체 개발 AI 운영 체제 코스모스 구동

휴메인(Human Inc.)이 웨어러블 인공지능(AI) 컴퓨터인 휴메인 Ai 핀을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Ai 핀은 독립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조 및 제2의 두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웨어러블 컴퓨터다. 텍스트 및 데이터 그리고 사진 및 비디오 저장 능력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월간 요금제에 의해 구동된다.

휴메인 Ai 핀은 지능형 기술과 사용자 친화적인 상호작용 및 첨단 보안 기능을 결합했으며 휴메인이 자체 개발한 Ai 운영 체제인 코스모스가 구동한다. 코스모스는 제품 업데이트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으며 기기와 클라우드에서 모두 운영되도록 독특하게 설계되었다. 휴메인 고유의 Ai 버스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컨텍스트 시스템은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휴메인의 Ai 핀을 장착한 모습. /휴메인

사용자를 그들의 행동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Ai 경험에 즉각적이고 지능적으로 연결한다.

Ai 핀은 이클립스(699달러 번들)와 루나와에퀴녹스(799달러 번들)를 포함한 3가지 컬러웨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액세서리는 휴메인 Ai 클립(49달러), 래치(39달러)와 9 가지의 다른 실드 색상(29달러)을 포함하여 별도로 구입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 딥핑소스, 日 소매업계 디지털 혁신나서

aix와 ‘매장케어링 솔루션’ 현지 진출

‘AI 리테일테크 스타트업’ 딥핑소스가 일본 도쿄에서 데이터 중심 마케팅 솔루션 회사 aix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의 aix와의 제휴를 통해 딥핑소스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 확장을 목표로 한다.

14일 딥핑소스에 따르면 aix는 글로벌 AI 마케팅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

로, 딥핑소스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통해 일본 소매업계의 고객 서비스 및 운영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핑소스는 매장 운영과 고객 행동 분석을 AI로 처리하여 매장 환경을 최적화하는 ‘매장케어링 솔루션’을 제공한다.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매대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쾌적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